

코딩

글 | 송지혜

그림 | 김효인

글 | 송지혜

그림 | 김효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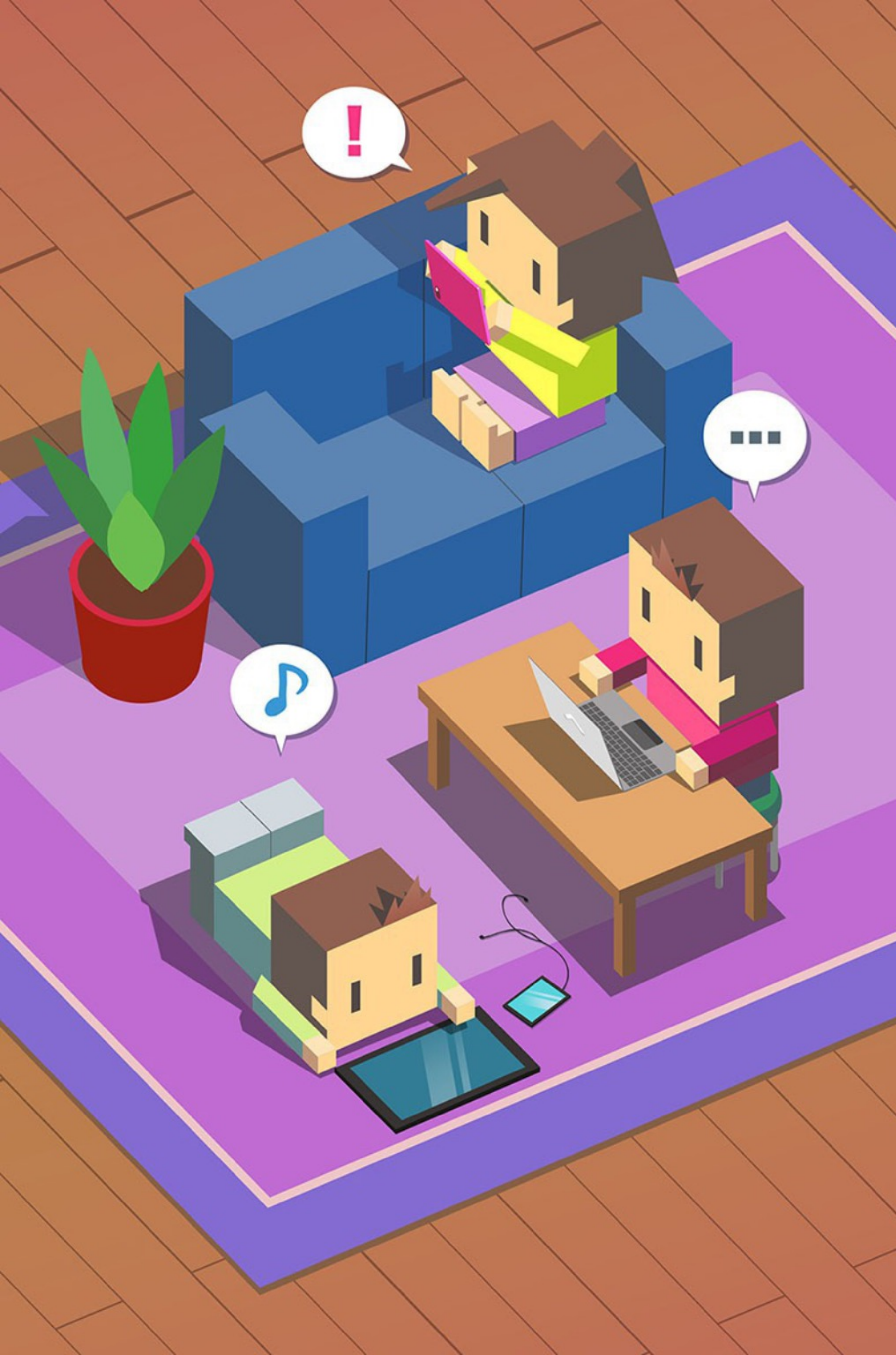
편집 | 김은파, 이수인, 이정아

편집 디자인 | 이해명

감수 | 김형진

목소리 | 윤성혜





여러분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요?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, 신나는 음악도 듣고,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을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컴퓨터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척척 해낼까요?



사실 컴퓨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동영상은 어떻게 화면에 나오는지, 게임의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이 컴퓨터에게 하나하나 명령을 내려 줘야 해요. 이렇게 컴퓨터에게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키는 것을 ‘코딩’이라고 합니다.



하지만 컴퓨터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못 알아들어요. 외국인과 이야기하려면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, 코딩으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하지요.

```
public class HelloWorld {  
   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  
        System.out.println("Hello World!");  
    }  
}
```

```
#include <iostream>  
using namespace std;  
  
int main()  
{  
    cout << "Hello, World!";  
    return 0;  
}
```

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의 종류는 아주 많아요. 코딩을 할 때는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지에 따라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한답니다. 하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은 대부분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.





그럼 코딩은 전문적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몇몇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코딩은 누구나 가능해요! 나이와 성별, 국적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말이에요.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말도 있거든요.



최근에는 명령이 적힌 블록들을
조립해서 컴퓨터에게 알려 주는
방법도 개발되었답니다. 나이가
어려도 쉽게 코딩으로
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
있어요.



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코딩을 배울 수 있대요.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는 학교에서 코딩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. 이미 코딩을 통해 재미있는 게임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앱을 만들어 낸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해요.



이미 우리 생활은 컴퓨터 없이는 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어요. 따라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. 그렇기에 코딩을 잘 이해한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


코딩을 통해 스마트폰 앱을
만들어, 로봇 팔이 움직이도록
명령을 하는 내 모습. 상상만
해도 멋지지 않나요?

“코딩” is licensed under CC BY 4.0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.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, visit <http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/>.

© 2019 by Enuma, Inc. &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